

(세 가지 법)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기준의 두 번째, 기본 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차원의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法)문제입니다.

미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1789년 3월 4일 발효(發效)되었습니다. 이 당시 헌법(憲法)은, 7개항목이었습니다만, 그후 180년이 지난 1969년 7월까지 26회를 수정해, 총 27개 조항의 수정헌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주법(禁酒法) 같이 폐기된 조항도 있었습니다.

연방(聯邦)헌법개정 발의(發意)를 하려면, 상원(上院)과 하원(下院)에서, 각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미국 50개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이같이 발의 된 후에, 미국 전체 주의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어야, 헌법 개정이 인준(認准)되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제정된 법들이 수정(修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다만, 그 법의 적용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적용할 법의 선택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평(公平)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불공평(不公平)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가지 법(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것은 양심법(良心法)이고, 둘째는 율법(律法)이고, 셋째는 믿음의 법(신법, 信法)인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I. 양심법(良心法) (12上, 14-15)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법’이란 ‘양심의 법’을 말합니다. 본성(nature), 양심(conscience[kánfən])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유대적용어가 아닙니다. 사도는 헬라 로마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쉬네이데시스’(suneidesis)인데 ‘함께 안다’는 뜻의 그리스어 ‘슈노이다’(συνουδα)에서 갈라져 나온 단어입니다. ‘보편적인 선(善)에 대해 함께 아는 것, 즉 사람들이 양심으로 공통의 사실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비전성경사전)

사람마다 그 양심에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의 Black box 처럼 그것을 판독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스스로를 양심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양심(良心)이란 특별한 것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4-15절이 가로()속에 처리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삽입구(插入句)입니다.

이 구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재판정’이 연상됩니다. 양심은 ‘증인’이고 생각들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가 되어서 서로 ‘송사’하고 ‘변명’한다고 합니다.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이어지는 법정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良心)안에서 봅니다. 양심은 특별한 우리의 내면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법에서는 자연법 또는 불문법(不文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成文法)에 대비됩니다.

법은 법인데, 기록되어지지 않은 법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률(道德律, moral code)이라고도 합니다. 도덕률은 인간의 양심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알지 못 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그들 자신의 율법의 구실을 합니다.

철학자 Kant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道德律)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指針)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할 일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성 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율법없는 이방인들 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한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시는 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II. 율법(律法), 하나님의 법 (12下-13)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法)을 말합니다. 좁게는, 십계명(十誡命)과 거기에 따르는 부속법(附屬法)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짧은 5절의 본문에, 11번이나 율법(law)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8번을 그 앞에 정관사 the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알 만한 사람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 Law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첫 다섯 권인, 모세오경(토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자니, 그 대상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율법(律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중간정리(中間整理)**를 해봅니다. 두 가지 법(法)이 있다 했습니다.

1. 하나는, 양심법(良心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良心)을 넣어두었습니다. 인간 속에 보석(寶石)같은 것을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2. 둘째, **율법(律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選擇)을 받은 이스라엘사람들에게 주신,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유대인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양심법(良心法)입니까? 율법(律法)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실 어느 법으로 가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지난 시간말씀을 본 것처럼, 진리(眞理)대로, 하나님의 의(義)대로, 우리가 행(行)한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곤란한 지경이요, '슬픈노래'가 될 것입니다. 애가(哀歌)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가(哀歌) : 이 두 가지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에 대해서, 예상(豫想)하여야 합니다. 이 법을 적용한 결과,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양심에 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운명(運命)은 어떻게 될까요?

1) 양심법의 결과는 어떠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이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1:18),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돌리지 않는 사람들'(1:21)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 사람들'(1:21)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사람들'(1:24).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득찬 마음이 된 사람들' (1:26).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하고 타락된 마음의 사람들'(1:28). 그리하여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된 사람들'(1:29)'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破船)**하였느니라 (딤후1:19),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烙印)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딤후4:2) Such teachings come through hypocritical liars, whose consciences have been seared as with a hot iron.(NIV)

* 파선(破船), 낙인(烙印), 화인(火印)과 같은 치명적단어(致命的單語)를 사용한 것은, 도저히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과 세계사의 모습들은, 양심법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담이래로 인간들의 타락은, 아담, 가인, 노아시대, 바벨시대를 거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2) 그러면, **율법(律法)의 결과(結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논지를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과,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의 결과가, 모두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14)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듣는 다고해서 다 실천(實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듣는 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율법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KS 위스트 로마서 원문주석 p56.)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듣는 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율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겉 다르고, 속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罪人)이더라는 것입니다. 구약백성이든, 신약백성이든 하나도 다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3장에서 그 결론(結論)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3:23)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정리(整理)해 봐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그의 양심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법 #1으로 봐도, 법 #2로 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두가지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어떤 절망(切望)으로 인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기록의 목적일까요? 허무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두운 미래를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들어 윤동주시인의 시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가 24살 때에 지은 ‘서시(序詩)’를 기억합니다. (1841.11.12)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출신으로서 서시를 지은 같은 해에 십자가(十字架)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괴로움이 나라를 잃은 데서 오는 괴로움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본 것일까요? 윤동주가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 3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위치에 와있습니다.

III. 제 3의 법(法), 복음 (롬2:16)

“ 곧 내 복음(福音)에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도는 이 section를 마치면서 “내 복음 my gospel.”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변천사(變遷史)가 등장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the gospel of God), 1:9절에서, ‘아들의 복음’(the gospel of his Son) 그리고 이제 2:16절에서 ‘내 복음’(my gospel)이라고 합니다.

* 이 구절의 어법으로 보면 복음의 내용중 심판이 들어있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심판(審判)이 복음(福音)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모(全貌)가 밝혀지지 까지는 가려어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는, 나머지 로마서에서 이야기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맞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3의 법과 연관되어있습니다.

1) 제 3의 법은 <믿음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한자로 줄임말하면, 믿을 신(信), 법 법(法)으로 신법(信法)이 됩니다. 새로운 신(新)자 신법(新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롬 3:23-27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罪)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贖良)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恩惠)로 값 없이 의(義)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和睦祭物)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看過)하심으로 자기의 의(義)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義)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義)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義)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行爲)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法)으로니라” 마지막 말이 충격적입니다.

* 여기서 사도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비(對比) 시키고 있습니다.

2) 이 법은 또한 ‘**생명(生命)의 성령(聖靈)의 법**’으로도 불립니다.

로마서 8:1-4절에선 이 법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 사도는 성령(聖靈)의 법과, 죄(罪)와 사망(死亡)의 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양심법과 율법은 결국 사람에게 사망(死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묶던 그 법에서 (양심법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죄(定罪) 받지 않게 하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生命)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는 의무(義務)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恩惠)를 주시며, 밖에서 말씀하시는 타자(他者)가 아니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가 죄를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고,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볼, 신세계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맺음과 도전 : 지금도 3가지 법이 역사합니다.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법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고 마지막은 신법입니다. 어느 법으로 적용(適用)받고 싶으십니까?

양심과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들리십니까?

"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허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파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롬3:10-18)

그러나, 믿음의 법, 신법아래 있는 자의 힘찬 다른 노래가, 롬8장 38-39절에 나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천체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 이것은 새 노래입니다. 함께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